

#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자 행태조사<sup>1</sup>

김용근<sup>2</sup> · 최성식<sup>2</sup>

## Surveying Visitors' Behavior in Tökyusan National Park<sup>1</sup>

Yong-Geun Kim<sup>2</sup>, Sung-Sik Choi<sup>2</sup>

### 요 약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자 행태조사는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44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8.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7.5%와 64.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4.7%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구천동계곡쪽은 49.2%가,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67.9%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계곡이용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과 함께 온 경우가 46.6%,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나 친구나 가족모임이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숙박형 이용객이 응답자의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이상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버렸던 곳에 버리는 행위가 각각 64.7%와 31.1%로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환경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의 요구도가 높았다.

주요어 : 환경훼손행위, 반규범적인 행위, 끼어들기 행태

### ABSTRACT

Visitors to Tökyusan National Park were surveyed from August 9 to 12. During this time, 443 visitors were contacted. Of those individuals, 68.7% were males. 27.5%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gone beyond high school, and over one-half (64.9%) had gone as far as college. 54.7% were 20 years of age. 42.9% of the survey respondents were making their first trip to Kuch'öntong and 67.9% to Muju Resort. The larg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were reported that they visited Tökyusan National Park for rippling. In group type, majority were traveling with their friends or family. In activity characteristics, 83.4% were staying over nights visitors, and over 50% mentioned staying at private houses or hotels. In six types of normative violations, major reasons of littering behavior were unintentional violation and releasor-cue violation. Most respondents who witness other visitors' littering were

1 접수 1월 15일 Received on Jan. 15, 1994

2 동신대학교 환경조경학과 Dept. of Landscape Arch., Dong-shin Univ., Naju 520-714, Korea

not likely to intervene to stop their visitors' depreciative behavior(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Most of visitors want to get more information from national park office.

**KEY WORDS : NORMATIVE VIOLATIONS, DEPRECIATIVE BEHAVIOR,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 서 론

국립공원의 개발과 이용측면에서 자연환경훼손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계곡주변에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가 국립공원 관리의 가장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계곡의 물놀이가 주요 활동인 여름철 덕유산 국립공원의 관리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문제와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의 불법투기 현상은 주로 무지나 무의식적인 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인식되었고(Kim, 1990; 김, 1992a), 그 관리기법으로는 직접적인 접근방법과 간접적인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들의 환경훼손행위를 근원적인 치유방법은 다양한 Communication 기법이 효과적이며(김, 1992a, 1992b, 1993, 1994; 김과 Gramann, 1992), 실효성 있는 기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환경훼손행위의 배경을 이해하는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훼손행위의 배경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적인 행위이거나 무지에 의한 행위 이외에도 모방에 의한 행위, 환경탓에 의한 경우, 책임회피행위 및 고의적인 행위 등 6가지로 분류되며(Gramann and Vander Stoep, 1987; 김, 1992b) 외국에서는 각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검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결과가 없는 실정이다.

국립공원 관리에서 일반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하는 관리기법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도입되어 실험적인 연구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원관리에서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남을 도와주기 이론”(Prosocial Behavior Theory)과 “끼어들기 이론”(Bystander Intervention Theory)으로 구분하여서 설명된다(Kim,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론의 도입단계나 실험단계에 있으며,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불법취사행위에 대한 이용객의 “끼어들기 이론”을 검증하여 대부분의 이용객은 불법행위에 그냥 지나치거나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공동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덕유산 국립공원에서의 이용객 이행태나 공원관리를 위한 홍보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동시에 쓰레기 불법투기현상에 대한 6가지 사회심리학적 배경과 다른 이용객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 행위를 지적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끼어들기 이론’을 실험하였다.

##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조사방법론을 교육받은 10명의 대학생 조사요원에 의해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구천동계곡쪽 국립공원구역내의 입구, 휴게소, 칠봉등산로, 백련사 입구 등산로주변에서 국립공원 이용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무주리조트의 스키하우스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국립공원 구역내를 들어 왔다가 귀가하는 이용객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의뢰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이용객은 총 443명이었다. 장소별로는 구천동쪽 공원구역 내에서 328명, 그리고 무주리조트에서 115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현장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SPSS 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43명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분석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 보면 남자가 68.7% 여자가 31.1%를 차지했으며, 연령의 분포는 20~29세가 전체의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39세가 22.8%, 19세 이하는 8.7%, 40세 이상은 13.8%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 동안의 국립공원 이용자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이다(김, 1993; 이 등, 1992; 조와 오, 1991).

학력분포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7%가 대학 및 대학교, 27.5%가 고등학교, 4.0%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 그리고 3.8%만이 중학교 이상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립공원 이용자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이 등, 1987; 이 등, 1992; 김, 1993) 특히 덕유산 국립공원에서의 이용자 교육수준은 대학수준이 많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0~90만원이 22.5%로 가장 높았으며, 90~120만원이 21.4%, 150~200만원이 16.7%, 60만원 이하가 13.7%, 120~150만원이 13.2%, 그리고 200만원 이상이 12.6%로 나타났다. 직업분포에서는 학생신분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23.5%, 자영업이 9.1%, 공무원이 8.8%, 교수/교사가 7.6%, 주부가 6.9%, 무직이 5.6%, 기능직이 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이용자는 학생이나 젊은 회사원 중심으로 이용자의 연령층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이용자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25.5%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17.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0%)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고르게 덕유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지역 이상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3.3%로 조사되었으며, 군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6.7%인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국립공원 연구에서와 같이(김, 1993) 덕유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주형태는 도시형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 2. 이용행태

### 1) 이용빈도

이용자중 구천동 계곡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응답자의 49.2%로 나타났으며, 1~2회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은 34.3%, 3~4회 방문자가 9.7%, 그리고 5회 이상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가 6.8%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주리조트를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처음 방문자가 응답자의 67.9%, 1~2회 방문자가 22.8%, 3~4회 방문자가 4.3%, 그리고 5회 이상 방문한 자가 4.7%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무주리조트가 특정인에게 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14.2%만이 거부반응이 없고, 나머지 응답자는 부정적이거나 무반응을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된 무주리조트지구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공공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응답자의 76.1%가 무주리조트 주변에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대의를 표명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해야할 국립공원에 특정 이용시설을 유지한다

는 것이 잘못된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4.2%만이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여 나머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전에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응답자의 사회적특성과 다른 국립공원 지역의 이용빈도와와의 교차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hi-square 검정결과 교육수준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일이용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2) 방문목적

덕유산 국립공원 방문의 주된 목적은 계곡에서의 물놀이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 코스중 방문이 18.6%, 자연경관 감상과 덕유산등반이 각각 16.5%와 16.3%, 그리고 무주 리조트 방문과 사찰방문이 각각 14.0%와 0.7%로 나타났다. 무주구천동은 그동안 여름휴양지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계곡중심형 놀이행태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조사결과에서도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과 방문목적과의 교차분석결과 나이와 교육수준별 변수에 따른 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주리조트를 방문한 구성비가 높았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덕유산 정상등반의 구성비가 높았다 (Table 2).

### 3) 동반자 특성

덕유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동반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경우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형태, 즉 단체관광, 직장동료와 함께, 그리고 혼자 방문한 경우가 각각 2.3%, 7.4%, 4.2%,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동안의 국립공원 연구에서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김, 1993; 이 등, 1992; 조와 오, 1991),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동반자 특성은 응답자의 나이, 교육 및 소득차이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빈도가 높은 나이는 20대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빈도가 높은 경우는 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소득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단체관광이나 가족과 함께 탐방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visting times.

Gender	Income** (10,000 won)										Education**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Male	70.9	29.1	13.6	61.9	17.8	3.4	3.4	18.7	29.7	24.2	6.6	12.1	8.8	0.9	1.7	34.5	62.9
Female	67.5	32.5	6.7	52.5	25.8	11.7	3.3	17.1	17.1	20.0	20.0	14.3	11.4		0.8	32.5	66.7
Over 5	69.5	30.5	3.6	53.0	25.6	11.3	6.5	6.5	20.8	22.1	13.0	22.1	15.6	1.8	2.4	16.3	79.5
First visit	61.1	38.9	41.2	41.2	5.9		11.8	38.5	30.8	7.7		7.7	15.4	11.8	11.8	47.1	29.4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

Table 2.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visting purpose.

	Age**										Income (10,000 won)						Education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Climbing	69.6	30.4	8.6	72.9	5.7	4.3	8.6	14.3	26.8	16.1	12.5	19.6	10.7	1.5	7.4	17.6	73.5		
Nature Appreciation	69.6	30.4	4.3	48.6	27.1	11.4	8.6	9.7	22.6	32.3	16.1	14.5	4.8	2.9		30.0	67.1		
Visting Temple		100.0	50.0	50.0				50.0	50.0							100.0			
Rippling	67.5	32.5	11.3	58.3	22.6	5.2	2.6	14.3	31.6	20.4	10.2	14.3	9.2	0.9	0.9	30.7	67.5		
On a journey	68.8	31.2	7.8	54.5	26.0	10.4	1.3	13.2	19.1	22.1	20.6	11.8	13.2	1.3	2.6	28.9	67.1		
Visting Muju-Resort	66.7	33.3	3.5	36.8	36.8	17.5	5.3	10.2	6.1	18.4	10.2	30.6	24.5			22.8	77.2		
Etc.	82.1	17.9	20.7	51.7	17.2	6.9	3.4	25.0	12.5	16.7	8.3	16.7	20.8	3.4	3.4	31.0	62.1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

Table 3.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group type.

Gender	Age**										Income** (10,000 won)						Education**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travel in a Party	70.0	30.0	10.0	30.0	10.0		50.0	16.7	16.7	16.7	16.7	33.3		10.0	10.0	30.0	50.0		
Friend	70.5	29.5	12.2	82.1	2.6	1.0	2.0	21.9	28.4	20.0	12.9	10.3	6.5	1.5	0.5	32.3	65.6		
Company	53.1	46.9	3.1	65.6	21.9	9.4		12.9	51.6	6.5	9.7	6.5	12.9		3.3	20.0	76.7		
Family	66.0	34.0	4.7	22.0	47.3	19.3	6.7	4.3	9.7	27.5	14.5	23.9	20.3	1.3	2.0	24.8	71.8		
Alone	77.8	22.2	11.1	50.0	22.2	5.6	11.1	17.6	23.5	23.5	11.8	11.8	11.8	5.6	16.7	11.1	66.7		
Etc.	88.9	11.1	11.1	44.4	33.3	11.1		25.0	25.0		12.5	25.0	12.5			33.3	66.7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

(Table 3).

4) 활동특성

① 주활동 지역

여름철 구천동을 찾은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로 계곡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가 공원내의 계곡이나 집단시설지구 주변의 계곡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0.2%는 무주 리조트에서, 16.8%는 야영장에서, 그리고 10%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 주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응답했다. 국립공원이나 국민여가공간은 자연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놀이행태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은 이용자의 방문목적과 주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계곡형 국민휴양지의 특성을 잘 나타낸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무주리조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한 이용자의 빈도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② 체재 및 숙박형태

덕유산을 찾은 여름 휴가객의 체재형태는 당일형이 라기 보다는 1박 2일이나 3박 4일의 숙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8%는 1박 2일, 26%는 3박 4일, 그리고 20.2%는 2박 3일 일정으로 덕유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 이용객은 12.6%, 5일 이상의 장기 이용객은 5.5%로 분류되었다. Table 5는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과 체재유형과의 교차분석의 결과인데 나이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대의 응답자의 경우 다양한 체재유형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나, 30대의 응답자들은 당일방문이나 1박 2일의 체재유형에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숙박형태는 응답자의 50.3%가 민박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의 44.4%는 야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을 한 경우 공원내 야영장에서 야영을 한 경우는 응답자의 46.6%, 계곡주변에서 야영을 한 경우는 30.6%, 그리고 공원내에서 야영이 가능한 곳이나 정상 주변의 평지에 자유롭게 야영을 한 경우도 각각 14.5%와 1.4%로 나타났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야영장을 이용한 야영행태는 전체 응답자의 46.6%에 불과한 결과를 감안할 때, 불법 야영행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형태와 개인의 사회적 특성간의 교차분석에서 성별, 나이, 교육차이, 그리고 소득변수에 따른 숙박형태의 차이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남자의 경우 야영의 빈도가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민박이나 여관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야영의 빈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이차에 따른 차이는 20대는 민박이나 야영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고등학교 수준의 이용자의 경우 야영을 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에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서는 민박이나 여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용객의 대부분이 숙박형인 덕유산에서의 취사행태는 응답자의 71.1%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당 등에서 매식을 한 경우가 16%,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한 경우가 9.5%에 불과해 야영행태와 맞물려서 취사행위후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특히 이용자들의 쓰레기 방치에 대해 응답자의 11.5%만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88.5%의 응답자는 문제가 있거나 무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 관리문제가 덕유산 국립공원 환경관리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경관리와 대책

1) 쓰레기의 처분

구천동을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7%는 쓰레기통에 버렸고, 31.1%는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곳에 버렸다고 답변했으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숲에 묻고 오거나, 태웠다는 응답자가 각각 1.9%, 1.4%, 그리고 1%로 나타났다. 산악 등반이 주목적인 국립공원에 비하여 덕유산 국립공원의 여름 이용행태가 집단시설지구나 공원구역내의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이용한 이용객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고 훼손의 우려가 많은 곳에서는 아무리 미미한 훼손행위라 할지라도 그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공원관리의 철저한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대책

구천동에서 머무르는 동안 응답자의 59%는 다른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해 공원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것을 목격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지적해서 시정하게 한 경우가(Bystand Intervention Behavior) 응답자

Table 4.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visiting areas.

	Gender		Age**				Income(10,000 won)				Education												
	Male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Female	Male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Valley	71.1	28.9	9.4	52.2	21.7	8.9	7.9	14.0	23.0	24.2	14.0	16.3	8.4	2.0	1.0	27.4	69.7						
Commercial area	72.5	27.5	7.3	63.4	17.1	9.8	2.4	19.4	19.4	19.4	11.1	13.9	16.7		2.4	22.0	75.6						
Camping area	72.1	27.9	8.7	69.6	17.4	2.9	1.4	13.8	32.8	22.4	15.5	10.3	5.2	1.5	4.4	27.9	66.2						
Muju-Resort	66.2	33.8	6.5	36.4	37.7	16.9	2.6	11.8	11.8	16.2	14.7	23.5	22.1	1.3		29.9	68.8						
Etc.	50.0	50.0	18.8	62.5	12.5	6.3		8.3	50.0	8.3		16.7	16.7		13.3	13.3	73.3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01.

Table 5.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staying type.

	Gender		Age**				Income(10,000 won)				Education**												
	Male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Female	Male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1day	68.0	32.0	4.0	50.0	24.0	8.0	14.0	16.3	25.6	25.6	14.0	11.6	7.0	2.0	6.0	26.0	66.0						
1day-2night	63.4	36.6	3.2	54.5	27.3	8.4	6.5	10.1	25.2	21.6	15.1	14.4	13.7		0.7	27.2	72.2						
2day-3night	75.9	24.1	14.5	51.8	19.1	12.7	1.8	12.8	19.1	21.3	11.7	20.2	14.9	2.8	2.8	30.3	64.2						
3day-4night	70.8	29.2	16.7	50.0	16.7	8.3	8.3	28.6	28.6	14.3	4.8	14.3	9.5	8.3	8.3	33.3	50.0						
Over 5day	70.7	29.3	10.8	61.4	21.7	6.0		15.4	18.5	21.5	13.8	18.5	12.3	1.2		22.9	75.9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01.

Table 6.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seating type.

	Gender**		Age**				Income**(10,000 won)				Education**												
	Male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Female	Male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Less	Over	
Staying at private house	56.5	43.5	3.6	63.1	17.9	9.5	6.0	20.8	22.2	19.4	18.1	9.7	9.7	1.2	1.2	23.8	73.8						
Camping	76.5	23.5	12.0	66.3	17.7	2.3	1.7	16.2	29.7	23.0	12.2	13.5	5.4	0.6	1.7	34.5	63.2						
Hotel	64.4	35.6	5.8	30.8	37.5	20.2	5.8	5.4	9.7	21.5	14.0	24.7	24.7	1.9	1.9	18.3	77.9						
Etc.	63.2	36.8	15.8	47.4	15.8	10.5	10.5	26.7	13.3			33.3	26.7	5.6	11.1	33.3	50.0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01.

의 7.2%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0%는 그냥 지나쳤으며, 36.4%는 그냥 지나치면서 공원이용객으로 공동 책임의식을 느꼈고, 16.4%는 동행자에게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고 설명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끼어들기 현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 1993).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과 불법쓰레기투기를 목격한 후 대처방법과의 교차분석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이용객의 나이가 많은 경우 다른 이용객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보았을 때 지적해주고 시정하도록 간섭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가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은 국가재산이며 이용자 모두의 재산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없이는 올바르게 관리될 수가 없다 (김, 1992a). 국립공원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공원관리공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중심형 공원은 관리영역이 넓고 계곡 등이 깊어 현재의 관리인원이나 관리수법으로는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없으므로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행태나 이용자끼리 서로 감시하거나 지적하여 공원관리업무를 분담하는 길밖에 별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김, 1992b). 그러나 남의 잘못된 행동에 간여하는 행위는(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기존의 도덕관념이나 관여자의 위험부담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Kim, 1990; 김, 1993). 공원관리 업무상 타이용객의 환경훼손행위를 감시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나 본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간여자를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공원관리 업무에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고정신의 고취를 위한 사회심리학적인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쓰레기 불법투기 원인

이용객 스스로 판단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이용자들의 습관적인 행동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7.9%는 습관적인 행동의 연속으로 국립공원에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고 답변했으며,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불결하여 그냥 따라서 버린다는 환경탓의 이유가 11.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버리므로 따라서 버린다는 모방행위가 8.5%, 관리사무소의 관리정책이 잘못됐다

는 책임전가행태가 7.5%, 공원이용규칙을 잘 몰라서가 3.1%, 그리고 고의성에 의한 불법투기현상이 1.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원인별 차이에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9).

이용자의 환경훼손행위의 사회심리학적인 배경은 무지에 의한 행위, 습관적으로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 행위, 환경 탓으로 돌리는 행위,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중의 하나인 고의적으로 행하는 행위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용자의 환경훼손행위의 배경은 매우 복잡하고, 또 그 이유가 복잡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김, 1992b). 그러므로 공원의 환경이나 이용객들의 행태 등 다양한 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4) 환경관리대책에 대한 반응

덕유산 국립공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79.2%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안에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야영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증설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동시에 이용자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국립공원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이용자들의 불법행동을 규제하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공원이용에 따른 정보관리

#### 1) 공원자료 홍보관리

국립공원이용객의 이용안내나 공원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이용에 대한 홍보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배부되는 공원용 안내자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7.4%에 불과하며, 92.6%의 응답자는 안내자료에 접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해 공원안내나 홍보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의 홍보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되었던 것 (김, 1993, 1994)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3.9%가 공원이용에 대한 안내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장래 공원안내 관계자료의 개발과 충분한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Table 7.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eating type.

	Gender**		Age**							Income(10,000 won)					Education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cooking	68.5	31.5	7.4	61.6	21.2	7.1	2.7	14.1	24.2	21.5	12.9	15.2	12.1	0.7	1.7	27.2	70.4	
Lunch Box	81.6	18.4	7.9	23.7	26.3	21.1	21.1	15.2	15.2	12.1	18.2	27.3	12.1	5.3	2.6	28.9	63.2	
Booth	70.1	29.9	10.6	40.9	33.3	10.6	4.5	10.3	19.0	31.0	13.8	13.8	12.1	3.1	3.1	24.6	69.2	
Etc.	30.8	69.2	23.1	46.2	15.4	7.7	7.7	20.0	20.0			30.0	30.0		7.7	30.8	61.5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

Table 8.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Gender		Age**							Income(10,000 won)					Education**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No reaction	70.8	29.2	13.9	58.2	18.0	6.6	3.3	19.6	21.6	24.7	12.4	14.4	7.2	1.6		41.0	57.4	
Direct intervention (feel social responsibility)	75.0	25.0	15.0	35.0	10.0	5.0	35.0	18.8	31.3	12.5		12.5	25.0	10.0	5.0	25.0	60.0	
Nonintervention	74.5	25.5	2.1	58.3	29.2	10.4		5.1	28.2	10.3	23.1	20.5	12.8		2.1	29.2	68.8	
Nonintervention (feel responsibility)	65.7	34.3	9.1	47.3	25.5	15.5	2.7	12.1	17.2	21.2	13.1	22.2	14.1	0.9	2.8	24.8	71.6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

Table 9.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by the reasons of depreciation behavior.

	Gender		Age							Income(10,000 won)					Education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Less 60	60-90	90-120	120-150	150-200	Over 20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University	
Unintentional	69.2	30.8	15.4	53.8	15.4	7.7	7.7	18.2	9.1	18.2	9.1	27.3	18.2	7.7		30.8	61.5	
Uninformed	63.5	36.5	7.9	51.8	25.2	9.7	5.4	10.8	23.8	24.2	14.2	15.4	11.7	1.5	1.8	25.5	71.3	
Status-confirming	85.7	14.3	17.1	68.6	8.6	2.9	2.9	34.5	17.2	10.3	10.3	13.8	13.8	2.9	2.9	37.1	57.1	
Releaser cue	77.1	22.9	10.2	59.2	20.4	8.2	2.0	15.0	17.5	20.0	17.5	15.0	15.0		2.0	32.7	65.3	
Responsibility-denial	80.0	20.0	3.3	56.7	23.3	10.0	6.7	17.9	28.6	14.3	10.7	14.3	14.3	3.3		30.0	66.7	
Uninformed	60.0	40.0	20.0	20.0	20.0	20.0	20.0	25.0		25.0		50.0			20.0	40.0	40.0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



현재 국립공원의 이용안내자료는 공원입구에서 배부되는 팸프렛이나 공원구역내에 설치된 안내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덕유산 국립공원의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응답자의 28.1%만이 잘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거나 잘못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1992년도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현황에 의하면, 공원홍보를 위하여 2,000매의 야영장안내 팸프렛, 32,000매의 취사 및 야영금지 홍보팸프렛과 3,000매의 공원안내팸프렛을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같은 물량을 당해년도 공원탐방객 1,000,000명, 공원 입장객 385,000명에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으로 평가된다. 그나마 공원내에 설치된 1개소의 방문자센터는 공간적 규모나 비치된 자료의 수준 및 안내자의 전문성 등이 미흡하다.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이용자 스스로 공원관리에 협조하는 선진관리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원홍보기법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처음 시행된 경관해설판과 같이 국립공원 이용자의 자연경관 이해를 돕는 안내판 등이 개발되어 국립공원의 인식을 높이는 홍보작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정보의 입수경로

덕유산 국립공원의 방문계획을 세울때 이용객이 이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관광안내책자를 이용한 경우가 응답자의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친구를 통한 경우가 33.0%, 라디오나 신문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13.4%로 나타났으나 국립공원에서 배부하는 안내서에 입각한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본 결과가 기존의 국립공원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김, 1993, 1994)가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의 이용자관리 차원에서 여행전부터 올바른 탐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정보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 넓게 보급되기 시작한 PC통신이나 검색단말기를 통하여 국립공원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공원의 입구나 각 시도 중심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탐방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덕유산 국립공원 이용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립공원의 이용자의 구성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젊은 학생이나 회사원 중심의 이용자 연령층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용행태 측면에서 방문목적과 주활동지역을 비교할 때 계곡놀이가 지배적이었고, 숙박행태는 민박과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으며,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 이용객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교차분석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분행태에서는 대부분의 이용객이 공원 주변에 설치된 쓰레기통이나 쓰레기통은 아니지만 쓰레기가 임의로 버려진 곳에 자기도 따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악등반형 국립공원에서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회수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덕유산 국립공원의 성격상 집단시설지구나 공원구역내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산악등반형 국립공원과는 달리 쓰레기를 회수하는 경우가 적은 것은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이용객의 쓰레기 처분유형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쓰레기 투기문제는 모든 이용객에게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해석된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목격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취사행위에 대한 대응결과와(김, 1994)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지나치면서 공동책임감을 느끼던지 동행자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정도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국립공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공동책임의식이 매우 낮았다. 남을 고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통념상 때문인지 남의 잘못에 직접 끼어들기를 꺼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이해되나, 나이가 많은 이용객들의 지적율이 높은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나이든 사람들의 역할이 돋보인 것 같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배경은 이용자의 무의식적인 생활습성이 국립공원에서까지 연장된 무의식적인 배경의 경우와 주변이 불결하여 그냥 버린다는 환경 탓에 의한 행동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은 관리인원과 재원을 확보하여 버려진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환경 탓에 의한 쓰레기 투기심리를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공원과 생활환경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시키며, 국립공원이라는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이용자 자신이라는 책임의식 등을 강조하는 자체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스스로 국립공원 관리에 협조하는 행태를 바라는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이용자 행태교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는 법적규제 및 단속은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리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 국립공원 방문시 홍보나 이용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가 대단히 미흡한 반면 대부분의 이용객이 정보공급에 대한 국립공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을 볼 때 국립공원 관리기술의 연구, 자료개발, 그리고 자료 전달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정보검색 프로그램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색단말기를 각 지역에 배치하여 잠재이용객을 위한 정보제공범위를 넓히거나 개인 PC통신을 통한 정보제공은 국립공원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차원과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 김용근 (1993) 소백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응용생태연구 6(1): 218-228.
- 김용근 (1992a) 자연휴양지원 관리를 위한 Social Dilemma 해소방안. 한국임학회지 80(3): 287-295.
- 김용근 (1992b) 도시공원에서의 이용자 훼손행위 관리방안. -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20(1):101-105.
- 김용근 (1994) 자연공원에서 환경훼손 행태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정책의 효과. 한국조경학회지 22(1):(인쇄중).
- 김용근, Gramann, J. H (1991) 국립공원내의 환경오염행위 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정책의 효과. - 미국 Carlsbad Caverns 국립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19(2):32-40.
-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 (1992) 업무현황.
- 이경재, 최송현, 김선희 (1992)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응용생태연구. 6(1):72-85.
- 조재창, 오구균 (1991) 지리산 국립공원의 이용행태 분석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응용생태연구 5(1):104-113.
- Gramann, J. H. and G. A. Vander Stoep (1987)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natural resources portection: A conceptual synthesi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4.
- Kim, Young-geun (1990) Depreciative Behavior in Outdoor Recreation Settings: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Prosocial Behavior Theory. Unpubilshed dissertation,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